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의 기록문화프로그램 운영 사례와 발전방안

A Case Study on Nara Repository's Archival Culture Programs and
Developmental Directions

김미정(Kim, Mi Jeoung)*

1. 머리말
2. 기록문화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현황
 - 1)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 2)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프로그램
 - 3)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 4) 유아 대상 프로그램
 - 5)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
3. 기록문화프로그램 개발 방향 제언
 - 1) 기록문화프로그램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 2) 다양한 매체 및 컬렉션기록물을 활용한 기록문화프로그램 개발
 - 3) 기록문화전파자에서 기록문화의 아고라(Agora)로 전환
4. 맺음말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befocused108@gmail.com).

■ 투고일: 2019년 09월 30일 ■ 최초심사일: 2019년 10월 02일 ■ 최종 확정일: 2019년 10월 21일

■ 기록학연구 62, 109-138, 2019, <https://doi.org/10.20923/kjas.2019.62.109>

〈초록〉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은 2008년 개관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록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이 세종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대통령기록관과 나라기록관이 함께 기록문화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도 하였다. 기록문화프로그램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뿐 아니라 행정기록관, 역사기록관, 대통령기록관에서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소속기관의 실정에 따라 운영횟수 및 기획, 구성 등의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성남 나라기록관에서 운영되어온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 등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지향해야 할 아카이브의 기록문화프로그램의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주제어 : 기록문화프로그램, 진로체험교실, 견학, 기록사랑백일장, 전시관

〈Abstract〉

Since the opening of the Nara Archives in 2008, we have been operating the Archival Culture Programs. Before the Presidential Archive's relocation to Sejong, the Presidential Archives and the Nara Archives jointly operated the Archival Culture Programs. The Archival Culture Programs is operated not only by the National Archives, but also by Administration Archives, History Archives, and Presidential Archives. The operation frequency, planning, and composition are sligh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institution. Here, I would like to find out the current status of Programs composition and contents operated by Seongnam Nara Archives,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Archival Cultural Programs of the archive that should be pursued in the futur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xisting operation status.

Keywords : Archival Culture Programs, Job Experience Class, Love-Records festival, Archive tour

1. 머리말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舊 서울기록관)¹⁾은 2008년부터 기록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나라기록관 개관과 함께 시작된 기록문화프로그램의 목적은 기관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를 위한 것이었다.²⁾ 이후 10년 동안 나라기록관에서는 기록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³⁾ 기록문화프로그램 운영은 나라기록관이 개관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사람들을 유치하여 기록문화의 공유 및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록문화프로그램은 기록관에 대한 개념조차 생소한 일반 국민들에게 기록의 중요성과 기록관리의 기능 등을 쉽게 전달하고 알리는 기능을 해왔다. 지금 그간 10년 동안 운영되어 온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기록문화프로그램 중 진로체험프로그램이 주요 관심 대상이 되었다(이지운 2018; 송나라, 이성민, 김용, 오효정 2017; 박재영 2017). 그밖에 대통령기록관의 교육프로그램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이진영, 2012), 집단탐구(GI) 협동학습 모형을 활용한 대통령기록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장효정, 송나라, 최효형, 김용 2015), 국회전시관의 전시·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박옥남, 박희진 2017)과 같이 유관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의 현황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자유화 기제가 시행된 이후 관련 기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진로체험교실 등과 같

-
- 1)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은 몇 번의 조직개편을 통해 나라기록관(2008~2015.1.5./2019.1.2.~현재)에서 서울기록관(2015.1.6.~2019.1.1.)으로 또 다시 서울기록관에서 나라기록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본고에서는 2008년 이후 성남에 위치한 나라기록관(구 서울기록관 포함)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명칭의 혼선이 있을 수 있어 본문에서는 서울기록관, 나라기록관에 대한 명칭은 현재 명칭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2) 국가기록원. 2008. 나라·대통령기록관 기록문화 체험교실 개최 검토(안).
 - 3) 본고에서 참고한 자료는 공개인 각년도 기록문화프로그램 운영계획(안) 및 결과보고, 각 년도 국가기록백서, 국가기록원 주요통계연보(2019), 계간 기록인(IN)(2007~2018), 국가기록원 발간자료(원내 업무참고용 포함) 등이다(발간물 외 이하 자료는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것인).

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진로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가기록원의 기록문화프로그램 방식 및 내용구성 등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기록문화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운영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성남 나라기록관에서 운영되어온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 등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고, 기존 운영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지향해야 할 국가기록원 기록문화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던져보고자 한다.

2. 기록문화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현황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은 2008년 4월 23일 개관하였다. 2015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으로 기관명이 변경된 후 2019년 1월 나라기록관으로 다시 이름이 바뀌었다.

기록문화프로그램이란 기록서비스의 일환으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서 시행한 다양한 기록문화활동(백일장, 기록문화탐방)과 기록문화 체험학습(지역아동센터초청 기록문화체험교실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⁴⁾ 본고에 서도 기록문화활동과 기록문화체험학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록문화프로그램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하며, 여기에는 교육(강의와 체험 결합 등도 포함), 견학, 탐방 등이 결합되는 형태 등도 포함된다.

나라기록관은 2008년 개관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록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이 세종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대통령기록관과 함께 기록문화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기도 하였다. 현재 국가기록원 나라

4) 국가기록원 통계연보 등에서 기록문화활동과 기록문화체험학습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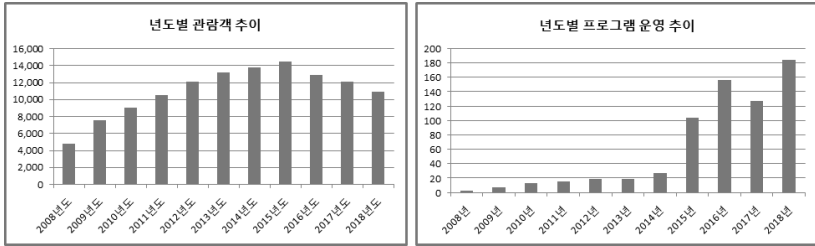
기록관에 대통령기록전시관과 국가기록전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통령기록전시관은 2019년 10월 현재 개편이 진행 중이다. 기록문화프로그램은 기록문화의 확산을 위한 국가기록원 차원의 활동으로 기록문화체험교실, 진로체험교실, 견학프로그램, 나라사랑 기록탐방, 지역주민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기록문화프로그램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뿐 아니라 행정기록관, 역사기록관, 대통령기록관에서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소속기관의 실정에 따라 운영횟수 및 기획, 구성 등의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나라기록관 기록문화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기록문화프로그램은 유아, 초등생,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에 따라 전시견학프로그램, 탐방프로그램(나라사랑 기록탐방), 직업교육프로그램(진로체험교실), 기록관리교육프로그램(기록문화체험교실, 찾아가는 기록관리 알리미 외), 기록문화홍보프로그램(기록문화체험교실, 기록사랑 백일장 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 나라기록관 연도별 관람객 통계⁵⁾

연도	아동 (유아 등)	초·중·고	대학(원)생	일반 (공무원포함)	외국인	계
2008	745	420	299	3,214	150	4,828
2009	1,003	3,435	521	2,380	181	7,520
2010	2,869	3,153	686	2,062	302	9,072
2011	2,951	3,300	745	3,369	180	10,545
2012	3,719	3,952	631	3,627	168	12,097
2013	2,627	3,819	750	5,852	129	13,177
2014	2,719	4,535	1,273	5,159	100	13,786
2015	1,545	5,467	1,101	6,223	180	14,516
2016	1,598	3,898	969	6,026	385	12,849
2017	1,980	3,546	632	5,848	96	12,102
2018	1,127	3,495	488	5,593	203	10,906

5) 국가기록원, 2019, 나라기록관 연도별 관람객 통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나라기록관의 연도별 관람객 통계를 보면, 2015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전체 관람객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별 관람객 통계를 보면 2015년에 관람객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ICA 서울기록총회를 대비하여 국가기록원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관람객 통계의 경우 기록문화프로그램 참가자 뿐 아니라 전시관 관람자 등이 포함되어 집계된다. 연도별 관람객 추이와 함께 연도별 기록문화프로그램 운영 횟수 및 참가자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2015년 기록문화프로그램의 운영 횟수가 전년도 대비 3.8배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람객 수는 2018년 정점을 찍고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운영 횟수는 2015년 이후 1년에 100회 이상 운영하였고 2018년도에는 184회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횟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수는 연구사1, 사무관급(연구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인력자원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성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표 2〉 연도별 나라기록관 기록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

연도	프로그램	운영 횟수	참가자 수	합계
2008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기록문화 체험교실	2	227	2회 / 227명
2009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기록문화 체험교실	4	399	7회 / 535명
	소외계층 어린이 초청 기록문화 체험교실	2	90	
	나라사랑 기록탐방	1	46	

2010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기록문화 체험교실	7	420	13회 / 709명
	소외계층 어린이 초청 기록문화 체험교실	4	175	
	나라사랑 기록탐방	2	114	
2011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기록문화 체험교실	8	565	15회 / 970명
	소외계층 어린이 초청 기록문화 체험교실	4	181	
	나라사랑 기록탐방	2	67	
	5월 가정의 달 기획행사(그림그리기)	1	157	
2012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기록문화 체험교실	8	560	19회 / 1,024명
	소외계층 어린이 초청 기록문화 체험교실	4	134	
	나라사랑 기록탐방	2	74	
	토요기록문화학교	4	161	
	기록사랑 백일장(성남지역)	1	95	
2013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기록문화 체험교실	8	496	19회 / 1,395명
	소외계층 어린이 초청 기록문화 체험교실	2	67	
	나라사랑 기록탐방	2	84	
	토요기록문화학교	6	189	
	기록사랑 백일장(성남지역)	1	559	
2014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기록문화 체험교실	8	499	27회 / 1,313명
	소외계층 어린이 초청 기록문화 체험교실	6	197	
	나라사랑 기록탐방	2	62	
	토요기록문화학교	5	177	
	기록사랑 백일장(성남지역)	1	215	
	어린이기자단 초청 기록문화체험교실	1	30	
	유관기관 연계 견학	4	133	
2015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기록문화 체험교실	10	673	104회 / 3,419명
	소외계층 어린이 초청 기록문화 체험교실	6	192	
	나라사랑 기록탐방	2	73	
	토요기록문화학교	6	219	
	기록사랑 백일장(성남지역)	1	283	
	어린이기자단 초청 기록문화체험교실	1	28	
	유관기관 연계 견학	36	582	
	진로체험교실	42	1,369	
2016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기록문화 체험교실	8	506	156회 / 6,471명
	소외계층 어린이 초청 기록문화 체험교실	4	134	
	나라사랑 기록탐방	2	70	
	토요기록문화학교	2	72	
	기록사랑 백일장(성남지역)	1	1,000	
	어린이기자단 초청 기록문화체험교실	1	63	

	유관기관 연계 견학	52	1,108	
	진로체험교실	52	2,525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프로그램	4	167	
	초등학생 견학 프로그램	30	826	
2017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기록문화 체험교실	8	538	127회 / 5,477명
	지역아동센터 초청 기록문화 체험교실	4	113	
	나라사랑 기록탐방	1	30	
	기록사랑 백일장(성남지역)	1	1,758	
	어린이기자단 초청 기록문화체험교실	1	14	
	유관기관 연계 견학	33	623	
	진로체험교실	43	1,335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프로그램	2	46	
	초등학생 견학 프로그램	34	1,020	
	2018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기록문화 체험교실	8	
지역아동센터 초청 기록문화 체험교실		4	120	
나라사랑 기록탐방		1	40	
기록사랑 백일장(성남지역)		1	1,048	
어린이기자단 초청 기록문화체험교실		1	62	
유관기관 연계 견학		46	1,292	
진로체험교실		42	1,290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프로그램		3	92	
책 읽어주는 기록관		30	1,500	
초등학생 견학 프로그램	48	1,440		
합계		673회 / 28,832명		

앞의 표는 연도별 주요 기록문화프로그램 횟수와 참가자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국가기록원 2018, 138-240). 나라기록관의 경우 2015년부터 기록문화프로그램 운영이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2014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기록문화체험교실 등을 비롯한 기록문화프로그램은 102회(173명), 2015년 진로체험교실 등 104회(3,419명), 2016년 세계기록총회 연계 탐방프로그램 등 156회(6,471명), 2017년 초등견학프로그램 등 127회(5,477명), 2018년 184회(7,292명)가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최근 3년간(2016~2018)의 기록문화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프로그

램 구성, 내용, 방식 등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8년 나라기록관에서 운영되었던 기록문화프로그램은 총 10개였는데 그 가운데 영유아 및 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6개, 성인 프로그램이 4개다. 기록사랑백일장이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기록문화체험교실은 가족이 함께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인원이 가장 많은 프로그램은 기록사랑 백일장이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체험프로그램,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진행되는 초등학교 4~6학년 대상 부모와 함께 하는 기록문화체험교실, 성남시교육지원과 연계한 초등학생 견학프로그램, 책임어주는 기록관 등은 아동 및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으로 각 프로그램 1회 운영시 보통 30명 이상으로 진행되었다.

1)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기록문화체험교실 · 초등견학 프로그램 · 어린이기자단 초청 기록문화프로그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기록문화체험교실, 초등견학프로그램, 어린이기자단 초청 기록문화프로그램 등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기록문화체험교실은 나라기록관 개관과 함께, 나라기록관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필요성에 따라 기획되었다. 2008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록문화강좌(드라마에서 만나는 조선왕조실록) 및 체험학습(옛책 만들기)을 통해 참가자들에 대한 기록의 인식수준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⁶⁾

6) 국가기록원. 2008. 여름 기록문화 체험교실 운영계획(안).

〈표 3〉 부모와 함께 하는 기록문화체험교실 연도별 주제 및 체험활동⁷⁾

년도	여름/겨울	주제	체험학습
2008	여름	영화, 드라마 속 기록이야기 조선왕조실록 대통령기록물로 본 한국현대사	옛책 만들기
	겨울	대통령기록관 바로 알기	실록 수첩 만들기
2009	여름	반구대암각화 조선왕조실록	가족신문 만들기 국악공연
	겨울	종이속 숨은 과학이야기 사진이 들려주는 옛날이야기	한지 뜨기 체험 입체북 만들기
2010	여름	의궤	의궤 한지부채
	겨울	옛날에는 어떻게 기록을 남겼을까?	죽간 만들기
2011	여름	승정원일기	세계기록유산 아트북
	겨울	일성록	액자형 기록달력 만들기
2012	여름	직지심체요절	옛 책 및 인쇄판(목판) 만들기
	겨울	훈민정음	한글디자인 에코백
2013	여름	난중일기	전통부채 만들기
	겨울	고려대장경	목판인쇄제작
2014	여름	동의보감	약첨싸기, 약향주머니 만들기
	겨울	조선 왕세자의 교육	LED 한지 등 만들기
2015	여름	광복이야기	조선백자
	겨울	한국의 서원, 유교의 책판	종이판화 인쇄체험
2016	여름	조선의 서명문화	도장 만들기
	겨울	달력으로 보는 기록과 역사	다이어리 만들기
2017	여름	세계기록유산이 된 우리나라의 기록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 아트북 만들기
	겨울	돌아온 조선왕조의 보물, 의궤	나의 의궤 만들기-에코백
2018	여름	선사시대의 기록문화를 찾아서, 반구대암각화	반구대암각화 탁본체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진행되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기록문화 체험교실의 그간 프로그램 주제를 보면 시대별로는 고려, 조선시대 관련이 다수이며 주로 세계기록유산과 관련한 한국의 기록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⁸⁾

7) 각년도 기록문화체험교실 자료집(배포자료) 참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인 의궤, 유교 책판, 동의보감, 난중일기, 훈민정음, 직지심체요절, 일성록,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소개를 통해 한국 기록의 우수성과 역사 등을 참가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2016년~2018년 3개년 기록문화체험교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척도 기준(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 이상이 평균 91.2%를 차지하였다.⁹⁾

그러나 그간의 주제를 보면 몇 개의 주제가 반복되어 운영되었고, 세계기록유산이라는 범주에서 주로 주제가 선정되었다. 물론 이들 주제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은 유익하고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10년은 지난 10여년간 운영되어 온 프로그램 주제를 기반으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 등을 소개할 수 있는 주제로 다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라기록관에서는 성남시교육지원단과 연계한 초등학교 3학년 대상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참여대상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 성남 인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급 단위로 신청을 받아 성남시교육지원단에서 선정한다. 2016년 초등견학 프로그램은 나라기록관에서 전시관과 보존서고 등을 중심으로 1시간 정도 견학 후, 나라기록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KOICA(한국국제교류협력단)로 이동하여 두 기관이 함께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그런데 체험활동 시간이 짧다는 의견이 제기되어¹⁰⁾ 2017년부터는 1시간 30분정도의 나라기록관 단독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6~2017년까지는 30학급을 대상으로 하였고, 2018년부터는 성남 뿐 아니

8) 국가기록백서 각년도(2008~2018)

9) 2016~2018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기록문화체험교실 결과보고 참고(이번 체험교실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설문항목에 대한 대답 결과 만족이상이 2016년 여름 94%, 2016년 겨울 90%, 2017년 여름 91.9%, 2017년 겨울 92.4%, 2018년 여름 91%, 2018년 겨울 88%로 나타났다).

10) 2016.12 성남시교육지원단 연계 초등견학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

라 서울 등 다른 지역의 초등학교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였다. 기존 성남 시교육지원단 연계 초등학교 30학급과 그 외 지역 등의 10여 학급으로 총 40학급을 대상으로 운영횟수를 확대하였다. 교육내용은 국가기록전시관 관람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체험하는 과정과 보존서고 견학을 통해 현대 기록관리 시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성남시교육지원단과 연계한 초등견학프로그램을 통해 지역학생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유관기관간 협력 체계 네트워크 구축도 도모하였다.

어린이기자단은 경기도 꿈나무기자단¹¹⁾을 대상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신청자 30여 명 및 동반 보호자가 함께 참여한다.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이 경기도 성남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경기도 소통담당관실과 연계하여 어린이기자단 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수년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기자단을 초청하고 운영하는 기록문화체험교실은 기획 당시 국가기록원이 주관하는 기록사랑백일장을 알리고 국가기록원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모집방법은 경기도 소통담당관실에서 공고를 통해 선발된 어린이기자단을 대상으로 한다. 2015년~2018년까지의 운영시간 계획을 보면 환영인사 후 백일장을 소개하고 보존상자 제작 등의 체험활동을 40~50분 정도 진행한다. 이후 40~50분 정도 나라기록관의 시설 견학 및 전시관을 관람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프로그램이 마무리 된다.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도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지지만 특히 어린이기자단의 경우 질문에 적극적이며 질의의 내용(직지심체요절 등 유출된 우리나라 문화재 반환 방안 등에 관한 질문 등)¹²⁾ 구체적인 특징이 있다. 질문을 통해 기록원 업무에 대한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기록과 역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등 역사와 기록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들의

11) 경기도 꿈나무기자단은 지역 곳곳을 취재하며 경험하고 느낀 것을 기사로 작성하여 경기도 뉴스포털 등에 게시하는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들로 구성된 기자단이다.

12) 국가기록원, 2018, 경기도 꿈나무기자단 초청 기록문화체험교실 운영결과 보고.

참여도가 두드러진다. 프로그램을 경험한 어린이기자단은 경기도뉴스포털 등에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는 기사를 작성하여 어린이들의 경험이 일반 국민들까지 자연스럽게 공유되도록 하였다.

어린이기자단과 초등견학프로그램의 경우 나라기록관이 소개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와의 효율적인 협업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지방기록관 등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시 참고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프로그램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기록문화프로그램은 진로체험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진로체험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2015년에 시범 운영한 후 현재까지 유사한 구성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유학기제 운영 중학교 재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라기록관에서는 ‘찾아오는·찾아가는’ 2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의 경우 원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신청학교의 수요를 조사한 후 찾아갈 대상학교를 선정한다. 원거리 소재에 있는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기록관리알리미’ 2회, 찾아오는 진로체험 38~40여회로 운영하고 있다.

‘기록과 함께 하는 나의 꿈, 나의 미래’의 주제로 특강과 보존상자 접기 및 마이크로필름 촬영 등 보존체험을 경험하고 시설 견학을 통해 국가기록원에서 하는 고유업무와 기능 등에 대해 소개를 한다. 특강, 시설견학·전시 관람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록관리 업무와 연구 직렬에 대한 소개 및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진로체험프로그램 인솔 선생님들의 경우, 각 학교의 진로담당 혹은 동아리 담당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인솔하여 참가하고 있다. 추후 진로체험프로

그램에 대한 새로운 기획 구성시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학생들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직업을 소개하는 정도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직업을 체험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심화프로그램으로의 전환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의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체험 활성화 방안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는 시점에서 교육 현장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3)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 지역아동센터 초청 기록문화체험교실 · 나라사랑 기록문화탐방 등

나라기록관에서는 소외계층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정보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취약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2009년도부터 운영해왔다. 지역아동센터 초청 기록문화체험교실, 나라사랑 기록문화탐방, 토요일기록학교 등이 그것이다.

지역아동센터 초청 기록문화체험교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기록문화 체험기를 제공하여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아동센터 초청 기록문화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 결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양한 학년 아동이 포함되어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어떤 아이들은 쉽게, 어떤 아이들은 어렵게 받아들인 듯 하다. 하여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상 학년별로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상 연령대를 구체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나라사랑 기록탐방의 경우도 유사하다. 2015년 기획된 나라사랑 기록탐방의 경우 다문화사회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이었다. 2015년도 나라기록관에서 가장 비중을 두었던 프로그램 중 하나가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국가기록백서 2015,

264). 2015년에는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동대문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기록의 기원과 삼국시대’, ‘기록문화의 꽃, 조선시대 생활을 담은 기록’이라는 주제로 운영되었다. 토요일기록문화학교의 경우 2012년부터 대통령기록관과 함께 공동으로 주관하여 진행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의 경우도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국가기록원 2015, 265).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시작된 나라사랑 기록탐방은 2018년 북경 정음한글학교 아동과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다문화가정에서 재외동포에 이르기까지 참여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현재 소외계층 기록문화프로그램은 대상을 나라기록관에서 발굴·선정하여 운영 중이다. 이로 인해 대상 계층에 대한 충분한 인구통계학적 정보 확보가 어려워 프로그램의 취지인 대상 계층의 정보에 대한 취약성의 실질적 개선이 실현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 지자체의 소외계층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의 대상 선정과 예산 확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4) 유아대상 프로그램 : 책 읽어주는 기록관

책 읽어주는 기록관은 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참가신청은 전화 또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할 수 있다. 영유아의 경우 집중의 시간이 크기 않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와는 다른 운영방식이 요구된다. 나라기록관은 2018년 책읽어주는 기록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전시관을 둘러보기 전 아이들에게 책을 통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시관 체험활동 공간 앞에 마련된 유아동 도서(800여권)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어떤 책을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라는 점이 중요하다. 현재 나라기록관 전시관 도슨트(공

무직)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도슨트는 영유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책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자극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유아, 아동의 관심도나 집중정도 등을 고려한 운영방식 등 전문성이 부가된다면 장차 기록에 대한 이용자 혹은 생산자가 될 어린이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단순 방문 차원에서 나라기록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눈높이 견학’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경험의 공간으로서 장(場)을 제공하여 아카이브 공간에 대한 친숙함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나라기록관 내 기록문화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 구성은 연구사1, 행정팀장1 공무원1 이다(2019. 9월 현재). 프로그램 기획·운영은 행정업무(예산, 서무 등)를 수행하는 행정팀에 소속되어 있다. 현재 이러한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아대상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 내 교사 출신 등의 실버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5)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기록문화프로그램 · 기록사랑백일장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기록문화프로그램과 기록사랑 백일장을 들 수 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기록문화프로그램은 나라기록관 소재 관공서·인근 공공기관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관람 수요인원을 파악하여 전시관과 보존서고 중심으로 20여 명 내외를 대상으로 1시간 정도 견학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주변 공공기관과 나라기록관 간의 교류협력에 중점을 두고 기획되었다. 주로 부인회, 노인회, 지도자협의회 등 주민자치모임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2007년부터 시작한 기록사랑백일장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의 주요 기록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 기록사랑 백일장은 성남 나라기록관, 대전, 부산 등에서도 동시에 진행되는 국가기록원의 주요행사로 일반 국민 모두가 참가할 수 있다. 이는 생활 속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시작되었고 2018년까지 제11회를 운영하였다(2019 국가기록 주요통계연보, 165). 2019년 12회 백일장은 기존 방식과 달리 공모전의 형식으로 바뀌었다. 글짓기, 그림, 만화 등 부문별로 진행하여 매년 많은 인원이 백일장에 참여한다. 참여자들이 기록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하고, 이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있어 아카이브의 공간은 놀이의 장소이자, 표현의 장소가 되고, 다양한 소통의 장소가 된다. 참여 대상의 제한이 없다는 점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어르신부터, 자녀의 참가를 위해 방문한 부모님도 함께 참여하는 하나의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백일장행사는 접근이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 역할을 한다.

성인 대상 기록문화프로그램 가운데 일반인 대상 뿐 아니라 대학(원)생, 기록관리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견학 프로그램도 있다. 주로 전문가 및 관련 학과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단체는 시설견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기록문화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구분되나 사실상 교육실습에 더 가깝다. 이들은 기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실제 기록관리 담당자인 경우가 많아 강의 등은 제외하고 견학 위주 중심으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견학은 상시적으로 사전 예약 등을 통해 하고 있으며 견학코스는 기본코스, 실무코스, 전문가코스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¹³⁾

13) 기본코스는 보존서고와 전시관 중심, 실무코스는 시청각실, 복원실, 보존서고, 전시관 코스이며, 전문가코스는 마이크로필름실, 스캐닝실, 시청각실, 복원실, 탈산소독실, 보존서고, 전시관 코스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코스의 경우 대학(원)생, 외부전문가, 외국인 등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기록교육센터를 통해서도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표 4〉 나라기록관 기록문화프로그램별 대상 및 운영구성¹⁴⁾ (2018년 기준 작성)

대상	기록문화프로그램명	구성	비고
초등학생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기록문화체험교실	·특강(45분) ·체험활동(45분) ·보존서고 견학·전시관 관람(해설)(30분)	·어름과 거울 주제 상이 ·체험활동은 특강주제와 연관된 것 ·견학 시 부모님과 동행
	성남교육지원단 연계 초등견학프로그램	·전시관 관람(해설)(40분) ·보존서고 견학(20분) ·전시관 내 체험활동(30분)	전시관 내 체험활동(방문증 출력, 서고모형 만들기 등)
	어린이기자단 초청 기록문화프로그램	·특강(20분) ·체험활동(50분) ·MF실, 시청각실, 복원실, 보존서고 견학, 전시관 관람(해설)(50분)	체험활동 -보존상자 만들기, 복원실습 등
청소년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체험프로그램	·특강(30분) ·체험활동(30분) ·MF실, 시청각실, 복원실, 보존 서고 견학, 전시관 관람(해설)(40분)	체험활동 -보존상자만들기, 마이크로 필름촬영 등
소외계층	지역아동센터초청 기록문화체험교실	·특강(40분) ·체험활동(40분) ·보존서고 견학·전시관 관람(해설)(40분)	체험활동 -보존상자만들기, 나라기록관 모형 만들기, 책자 만들기 등
	나라사랑기록문화탐방	·기관 소개 및 안내 ·보존서고 견학·국가기록 전시관 및 대통령기록전시관 관람(해설)(50분)	
일반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프로그램	·기관 소개 및 안내 ·시청각실·복원실·보존서고 견학·전시관 관람(해설)(60분)	일정에 따라 기관장 환담, 홍보동영상 상영 연령층 고려 견학동선 조정
	기록사랑 백일장	·기관 소개 및 안내 ·시제 발표 ·부대행사	부대행사는 매년 다름 -팜콘 제공, 즉석사진촬영(폴라로이드), 풍선너뛰 주기 등
유아	책 읽어주는 기록관	·전시관 체험활동 존 책 읽어주기 ·전시관 관람(해설) ·전시관 내 체험존 체험 활동	전시관 내 체험활동(방문증 출력, 서고모형 만들기 등)

운영인력 및 업무	연구사1, 사무관1(또는 연구관), 공무원1 담당자 주요업무 : 전시관 시설운영 및 견학, 기록문화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전체), 통계관리, 유관기관 및 외국인 시설 견학 등
--------------	--

3. 기록문화프로그램 개발 방향 제언

1) 기록문화프로그램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현재 나라기록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록문화프로그램을 운영목적에 따라 <표5>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해당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기록관 혹은 기록문화에 대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연도별 프로그램 참여 인원으로 보았을 때 기록문화에 대한 청소년과 대중에 대한 저변 확대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문화프로그램의 취지와 다른 운영목적에 고려했을 때, 일부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기록관리교육 차원에서 각 교육이 다루고 있는 분야와 수준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연계 운영에 한계가 있다. 기록관리에 대한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은 기록문화체험교실, 찾아가는 기록 알리미, 토요 문화학교 등이 있다. 그러나 각 프로그램에 다루고 있는 기록관리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기록관리절차와 기록관리의 중요성 등 개괄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록문화프로그램의 기록관리교육에 대한 수준별 콘텐츠를 개발하고, 각 프로그램을 수준별 구성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기록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들에 대한 이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각각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 초등생, 청소년들에 대한 이력

14) 각년도 기록문화프로그램 기본계획(안) 및 해당 프로그램 운영결과 보고

관리의 부재로 인해 참여자들의 기록에 대한 이해 수준에 차이를 파악할 수 없어, 대상별 특화된 기록관련 심화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 현재 기록문화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의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지득한 참여자들이 다시 참여하는 현상이 나타나 청소년과 지역시민에 대한 저변 확대의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이력관리를 통해, 참여 기회를 갖지 못한 시민들에게 홍보를 진행하고, 우선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록문화의 저변확대에 속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참여자들의 기록교육에 대한 이해 수준을 관리함으로써, 기 참여 인원내 대한 다음 단계의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록인으로써 소양 심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초·중·고 교실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록교육 콘텐츠 제작과 교사들과의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Hendry(2007)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초중고 교과과정과 관련하여 기록관의 기록물들은 매우 유용한 교육자료로서 그 잠재성과 가치가 높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캐나다 및 호주의 사례에 있어서도 기록관과 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기록관련 심화교육이 가능함이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나라기록관 및 국가기록원의 다른 기관들 역시 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학교 학습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한 사례를 찾아 보기 힘들다. 따라서 기록문화프로그램의 기존 콘텐츠를 학교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여 학교에 제공함으로써 기록교육에 대한 수혜자를 확대하고,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기록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록관의 교육서비스 접점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표 5〉 나라기록관 프로그램 운영목적에 따른 분류

프로그램/운영목적	전시견학	기록관리교육	직업교육	기록문화홍보	탐방(지역)
기록문화체험교실	0	0		0	
나라사랑 기록탐방				0	0

기록사랑 백일장				0	
찾아가는 기록알리미		0	0	0	
자유학기 진로체험교실	0	0	0	0	
지역주민 프로그램	0			0	
책 읽어주는 기록관	0				
토요기록문화학교		0		0	
유관기관 연계 견학	0				0

2) 다양한 매체 및 컬렉션 기록물을 활용한 기록문화프로그램 개발

2018년 기록문화프로그램은 10개, 운영횟수는 184회에 이른다. 프로그램과 운영횟수는 2008년 이래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운영되어 온 프로그램의 주제와 운영 방식 등은 기존 방식의 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새로운 변화가 거의 없었다. 한정된 주제, 부족한 인력, 행사 중심의 프로그램 등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자별 교육수준과 연령, 관심분야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늘리기보다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지난 10여년이 국가기록원의 업무와 기능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아카이브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단계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아카이브 본연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통해 기록의 중요성과 역사성 등을 전파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 등을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아카이브의 기능과 존재이유를 되새겨 볼 수 있는 현상이 되어야 한다.

라키비움¹⁵⁾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후, 한국에서도 아카이브와 박물관, 도서관이 결합된 공간에 대한 이상을 가지게 되었다. 몇몇 기관은 라키비

15) 라키비움(larchiveum)은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성격을 통합적으로 갖춘 기관(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움 개념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가 결합된 형태는 매력적이면서 이상적인 공간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아카이브와 박물관·도서관의 기능이 총합적으로 구현되면서 본연의 기능을 유지·강화시키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니다. 기능과 역할 등이 유사한 듯 하지만 각기 제 기능과 목적, 관리방식 등에 차별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키비움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간 안에 구현된 기능의 협업과 통합일 것이다. 실제 공간과 자원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각 기관간의 협업과 통합의 대상이 구체화 될 때 실제적인 라키비움이 가능하다.

아카이브, 박물관, 도서관에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프로그램은 대중성을 가질 수 있으나 아카이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관리기관의 기록문화프로그램은 기록을 중심으로 두고 내용과 구성, 운영방식 등을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면 아카이브 기록문화프로그램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첫째, 아카이브의 역할, 업무와 기능, 의미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둘째, 기록물을 통해서 사회·정치·문화·경제·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기록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아카이브 기록문화프로그램 구성안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을 제안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컬렉션을 중심으로 역사기록물(사본)을 통해 당대의 정치, 사회, 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단순히 기록유산의 종류와 의미 등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기록물을 통해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기록과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컬렉션별 주요 기록물을 활용한 기록문화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해당 주제의 기록물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아래 <예시 1>과 같이 한국전쟁을 소재로 기록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한국전쟁과 관련한 사진, 영상 기록물 등의 다양한 시청각기록물을 함께 제공한

다. 개인이 겪은 전쟁, 전쟁사의 한 부분에서의 한국전쟁, 그리고 전쟁과 평화, 인간의 존엄성과 전쟁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인문학적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 구성 예시 1 : 일반인(성인)대상〉

- 주제 : 나의 할아버지가 겪은 전쟁 이야기
- 기록물 : 한국전쟁도면, 한국전쟁 피난사진, 전쟁시 대통령 음성, 작전지도, 전쟁 관련 영상, 일기(문서, 음성기록물, 사진기록물, 도면, 영상기록물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대 상 : 일반인
- 운영방식 : 3~5명 모듬별 구성 20명 내외, 2시간(강사, 보조강사)
- 구 성 : 한국전쟁 관련한 기본정보 및 기록물 소개
 - ① 한국전쟁 관련 기록물 목록 제공
 - ② 각 모듬별로 주제별 각기 다른 기록물 사본 제공(1조 : 사진, 2조 : 도면, 3조 : 문서, 4조 : 일기 등) 후 기록물에 대한 정보탐색 시간
 - ③ 모듬별 토의를 통해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물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함 또한 기록물에 대한 가치 등도 함께 의견을 나눔
 - ④ 모듬별 발표(할아버지가 겪은 전쟁이야기를 2줄의 문장으로 표현해보기 또는 그림으로 표현하기)
 - ⑤ 참여 후기 작성 : 페이스북, 블로그, 홈페이지 등 후기 작성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통한 프로그램 개발도 요구된다. 중·고등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지털 기기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퀴즈 혹은 게임 등을 통해 기록관리프로세스 등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웹툰을 통해 기록의 역사, 기록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스토리텔링화 하는 작업도 제안해볼 수 있다.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기록에 대한 이해를 익숙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낯설이 익숙함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기록물을 활용한 프로그램 구성 예시 2 : 청소년 대상〉

- 주제 : 할머니가 겪은 전쟁경험-전쟁과 평화의 의미
- 기록물 :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이산가족찾기 기록물
- 대 상 : 중고등학생
- 운영방식 : 3~5명 모듬조 구성 20명 내외, 2시간(강사, 보조강사)
- 구 성 :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이산가족찾기 관련 방송기록물(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소개
 - ①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기록물 중 이산가족찾기 방송 관련 기록물 목록 제공
 - ② 각 모듬별로 주제별 각기 다른 기록물 사본 제공(1조 : 사진, 2조 : 영상 3조 : 문서 등) 후 기록물에 대한 정보탐색 시간
 - ③-1 세계기록유산의 내용과 가치를 기록물을 통해 직접 보고 느끼며 경험을 공유한 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관련 퀴즈와 게임의 방식으로 모듬별 결과 발표
 - ③-2 나의 웹툰 스토리 구성(웹툰 그림 10컷 사전 제공. 스토리만 구성) : 할머니가 겪은 전쟁의 경험을 이산가족찾기 방송 기록을 토대로 웹툰 스토리로 구성)
 - ④ 참여 후기 작성 : 페이스북, 블로그, 홈페이지 등 후기 작성

〈영유아대상 프로그램 구성 예시 3〉

- 주제 : 기록이 뭐예요? 여기는 뭐하는 곳이에요?
- 대상 : 유아(유치원생 대상) 20명 이하
- 운영방식 : 지역 내 실버인력(할아버지, 할머니)을 활용하여 구연동화를 통한 기록을 이해하기
 - ① 책 읽어주는 선생님 : 지역 거주 할머니, 할아버지(일정 교육 수료, 건강상태 등 고려)
 - ② 책 선정 : 단체관람객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과 나라기록관 담당자 간 사전 협의 후 아이들의 연령 및 관심사를 중심으로 책 선정
 - ③ 만화영상 함께 보기 : 국가기록원을 소개하는 만화영상 제작하여 1분 정도 상영
- 구성 : 도슨트 2명, 인솔자 2~3명

국가기록원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국공립대학 기록물에서부터 해외에서 수집한 기록물, 민간에서 기증받은 기록물 등 다양한 생산주체의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과 같이 조선시대 기록물부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문서 정부수립이후 공문서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기록물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기록물 뿐 아니라 한국전쟁, 5·18민주화운동, 4·19혁명,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과 같은 역사기록물도 소장하고 있다. 이들 기록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대전기록관, 대통령기록관과 연계하여 컬렉션 기록물을 중심으로 기록문화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해외수집, 민간기증기록물 등의 경우 역사기록관에서 관리하고 있고, 대통령과 관련한 기록물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협업을 통해 기록관별 유사프로그램의 중복을 지양하고 기획전시와 같이 국가기록원 기관 간 연계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은 일회성 행사의 운영계획과는 달라야 한다. 특히 기록물을 활용한 기록문화프로그램이 기획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3단계의 과정이 요구된다.

첫째, 준비단계이다. 준비단계에서는 우선 프로그램 주제와 관련한 기록물을 목록화한다. 목록을 토대로 기록물을 선정하고,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운영인력에 대한 협조 요청 등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특히 기록보존과 관련한 체험활동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부서 전문가의 인력 지원을 요청한다. 확보된 전문 인력은 프로그램 운영 시 이론과 실무를 함께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준비단계에서는 관련 부서, 관련기관(역사기록관 등)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주제별 기록물 목록화, 관련기록물의 공개여부 파악,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실행단계이다. 실행단계에서는 관련 주제를 가지고 참가자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운영방향을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하고 결정해야 한다. 운영방식을 분임별로 진행하기로 했다면 구성원의 인원수, 의견 개선의 방식, 이를 취합하여 정리해내는 방식 등 참가자들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활동을 세부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이다. 활용할 기록물을 복제하는 등 관련

기록물을 준비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참가인원에 맞는 체험활동 재료 등을 준비한다. 프로그램 운영공간을 확보하고 견학을 대비해 각 실별(시청각실, 복원실 등)에 참여인원 및 일시, 대상 등을 공유한다.

셋째, 마무리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이 이해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정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참여 프로그램의 후기를 작성하도록 유도하여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국민들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야 한다.

3) 기록문화전파자에서 기록문화의 아고라(Agora)로 전환

이경용은 우리나라 기록관리체제의 흐름을 (1)정부 수립이후~1969년 정부기록보존소 설립 이전까지 (2)1969년 정부기록보존소 설치 이후~1990년대 중반까지 (3)1990년대 중반 이후로 나누었다. 세 시기로 구분한 기준은 기록관리 전문기관인 정부기록보존소의 설립과 1990년대 후반의 기록관리 개혁의 전개였다(이경용, 2003). 기존의 이러한 기록관리체제의 흐름을 토대로 여기서는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필자는 보존 중심의 아카이브의 기능이 이후 기록의 사용자에게 방점을 둔 능동적인 정보 공개와 열람 그리고 나아가 시민들이 기록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카이브 3.0 시대가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

기존의 기록문화프로그램은 보존 중심의 아카이브의 주요 기능을 알리는 전시관 견학과 기록관리 절차의 일부를 실습 형태로 변환하여 체험하는 활동으로 운영되어 왔다. 아카이브 3.0 시대 기록관리의 대상은 공공기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카이브라는 허브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 기업 그리고 개인들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아카이브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로 상호 간에 교류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아카이브는 기록의 생산과 관리의 주체로 시민들을 양성하기 위한 기록문화프로그램을 통해 기록관리 표준을 교육하고, 기록의 생산, 분류, 정리, 기술, 보존에 이르는 프로세스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하여 기록관리프로세스가 시민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카이브 3.0의 기록문화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축제의 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아카이브의 앞뜰에서 기록에 대한 글을 짓고, 그림을 그리고 전시관을 돌아보면서, 기록관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자신의 일상 속의 기록을 어떻게 관리해갈지를 고민하는 그리스 시대 ‘아고라’와 같은 시민의 광장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역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기록은 그동안 지식 전달의 한 체계로 작동되었다. 그동안은 국가기록원에 대한 홍보, 국민들에게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기록문화프로그램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기록을 통해 소통하고 공유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지식체계를 형성해가는 장(場)이 되어야 한다.

아카이브의 본연의 기능 수행과 더불어 소장기록물을 통해 쌍방향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의 홍보차원에서 시작된 기록문화프램은 그간 기록문화전파자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제는 단순히 국가기록원을 알리는 수준을 넘어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기록원 기록문화교육은 미술관이나 역사박물관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주요 기록이나 기록관리의 주요 과정과 보존 기술에 대한 지식을 미래의 기록관리 주체가 될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이 기록관리를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기록관리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문화로써 시민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인들의 기록관리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기록사랑 백일장과 같은 행사가 지역 축제로 자리 잡음으로써 기록문화가 생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기록문화교육 및 체험은 기존 기록의 역사적 가

치 교육 및 전시관 투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기록물의 기록학적 가치 그리고 기록관리의 전체 과정에 대한 체험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중심을 옮겨 가야 한다. 기존 강의식 교육과 더불어 게임 형태 등의 체험 교육 콘텐츠를 구성해 가야한다.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을 통해, 어린이들이 우리 주변에서 관리되어야 할 기록물을 찾아 아카이브라는 공간에 들어와 특성에 따라 인벤토리에 분류하고, 다시 정리와 기술이라는 가공을 통해 아카이브에 아이템으로 저장하여 점수를 획득하고, 망가진 기록물을 복원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기록관리프로세스 전반을 체득할 수 있고, 기존 프로그램 대비 전달의 효과성 또한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기존 국가기록원의 체험 실습이 보존 등 일부 절차의 기술적인 단면에 집중하였다면, 기록관리절차 전반을 롤플레이(Role Play) 형태의 활동으로 구성된 교육 도입이 필요하다. 국회나 UN 등에서 모의국회 혹은 모의 총회 활동을 통해 안전의 선정과 상임위원회 구성, 논의 그리고 정책 입안을 다루어 참여자가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를 효율적으로 높여왔다. 기록 생산에 대한 시나리오, 기록 분류, 정리, 기술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보존과 복원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각 단계의 의사결정 논의와 실제 기술적 활동을 병합한 교육 과정을 구성함으로써 참여한 청소년들의 기록 관리 절차에 대한 전반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4. 맺음말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기록문화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10여 년간 프로그램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기록문화프로그램의 대상과 구성, 담당인력의 수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2015년을 전후 기록문화프로그램의 횟수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ICA서울기록총회 관련 기관 홍보와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체험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유아대상 프로그램,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그간의 운영은 특강, 체험활동, 견학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대상만 바뀔 뿐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을 과감히 시도하지 못했다. 시범운영 등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는 있으나 현재 운영인력이 가지는 한계로 기록문화프로그램의 내용은 정체되었다.

여기서는 그간의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의 기록문화프로그램 운영사례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다양한 매체 및 컬렉션 기록물을 활용한 기록문화프로그램 개발과 기록문화전파자에서 기록문화의 아고라(Agora)로 전환이 그것이다. 기록문화프로그램의 방향성, 운영방식, 구성 등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10년간의 운영사례를 토대로 향후 10년간 기록관리기관의 기록문화프로그램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분은 추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앞으로 지방기록관 등의 설립이 본격화된다면 각 기록관내에서도 기록문화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고민이 수반될 것이다.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의 운영사례를 토대로 기록관리기관의 기록문화프로그램이 지금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곽건홍. 2019. 『아카이브와 민주주의』. 서울: 선인.
- 곽건홍. 2011. 일상이아카이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29, 3-33.
- 장효정, 손날, 최효영, 김용. 2015. 집단탐구(GI) 협동학습 모형을 활용한 대통령기록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3), 51-81.
- 김연주. 2009. 아카이브와 박물관의 전시 비교와 개선방안 : 건국60년 기념 전시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2), 103-131.
- 박옥남, 박희진. 2017. 국회도서관 전시·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라키비움 운영모델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1), 201-226.
- 최영실. 2012.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 융합에 의거한 라키비움 공간 기획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진영. 2012. 『기록자원에 기반한 대통령기록관의 교육프로그램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윤. 2018. 『국가기록원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영. 2017.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의 교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 분석』.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용. 2003. 한국 기록관리체제 성립과정과 구조 : 정부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8, 3-56.
- 이영남. 2018. 기록학과 교육적 관점 기록향연, 몇 가지 단상. 『기록학연구』, 57, 165-234.
- 송나라, 이성민, 김용, 오효정. 2017. 자유학기제에 적용가능한 대통령기록물 활용 교육 프로그램개발. 『기록학연구』, 51, 89-132.
- 조민지. 2018. 국가기록 전시의 의미화에 대한 이용자 수용과 변화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57, 5-33.
- Hendry, J. 2007. Primary sources in K-12 Education: opportunities for Archives. *American Archivists*, 70, spring/summer: 114-129.
-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2018. 2018년도 국가기록원 주요통계집.
-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2017. 국가기록원 주요업무 참고자료집.
-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2016. 국가기록원 주요업무 참고자료집.
-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2019. 2019 국가기록원 주요통계연보.
- 국가기록원. 각년도 국가기록백서(2008-2018).
- 국가기록원. 각년도 기록문화프로그램 계획(안) 및 운영 결과보고.